

도·혁신도시 공공기관 상생협업 소통

김 지사·혁신도시 14개 공공기관장, 전북발전 현안 공유 도, 2차 공공기관 이전·바이오특화단지 유치 협력 요청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혁신도시 W푸드테라피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개발원장,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14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모임인 '온빛희'를 개최했다. 온빛희는 '큰 꿈, 하나의 꿈'이라는 뜻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도, 혁신도시 13개 기관, 전주시, 완주군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장 모임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현안 설명을 통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우리 전북

지역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한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 기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또 지난해 세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유치시 온빛희에서 협조를 다짐한 뒤 한 달여만에 선정이란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이차전지에 이어 신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선점을 위한 바이오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참석 기관장들은 "'온빛'이라는 이름처럼, 하나의 큰 꿈을 품고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바이오특화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뜻을 모았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의 장을 마련하자"라고 입을 모았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5일 혁신도시 W푸드테라피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개발원장,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14개 혁신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올해의 건배주 선정

이강주25, 한영석 청명주, 붉은진주 머루와인 3개 제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 道 공식행사에 활용 예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이강주의 '이강주 25(리큐르)', 정읍시에 위치한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한영석 청명주(약주)', 무주군에 위치한 붉은진주의 '붉은진주 머루와인(과실주)'을 2024년 올해의 건배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의 건배주'는 도내 우수 전통주 홍보를 위해 도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주 총 8개 제품이 출품됐다.

출품된 제품에 대하여 술 품평회 심사 내역, 인증 이력 등 서류평가를 진행하고 3명의 주류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을 구성해 맛, 향, 색상 등 제품(관능) 평가를 하여 올해의 건배주를 최종 선정했다.

전북 전통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2022년 도내 전체 주류 매출액의 2%를 초과했으며, 2022년 기준 전북 전통주 출고량은 3,130kl로 국내 전통주 시장의 13.1%로 전국 3위, 출고액은 257억 원, 15.8%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에 선정된 올해의 건배주를 7월부터 연말까지 도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 행사에서 건배주로 적극 활용하고, 특히 4개월여 남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공식 건배주로 활용돼 도내 우수 전통주를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도 공동 마케팅 사업비를 확보해 국내 주류박람회 참가,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등 국내외 판로개척 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해마다 도내 우수 전통주를 '올해의 건배주'로 선정하고 마케팅을 지원함에 따라 전통주 인지도 향상 및 소비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올해의 건배주 선정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우수한 품질의 전통주가 발굴됐다"라며, "성장하는 전통주 시장에 발맞춰 도내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자동차업종 고용활성화

도, '전북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자동차업종 근로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북 자동차업종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4일부터 도내 자동차업종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전북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은 지난 4월 25일 고용노동부-현대·기아자동차-중소협력사 간의 상

생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4억 원을 확보,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도내 자동차업종 고용 활성화와 인력난 개선을 위해 신규 및 재직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대상과 내용은 도내 소재 한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및 근로

자로서 △일자리 채용 지원금은 4월 25일 이후 입사자가 3개월·6개월·12개월 근속 시 근로자에게 근속지원금 각 100만 원, 최대 300만 원을 지원 △일자리 도야장려금은 기업체가 4월 25일 이후만 35~59세 이하 신규근로자와 최저임금의 120% 이상(기본급 기준) 근로계약 체결 시 기업체에 월 100만원,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복지 지원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비, 건강검진비를 각 20만원/인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사업참여 접수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사업 선정절차를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모집공고 확인 및 참여 신청 등은 수행기관인(사)캠빅종합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성철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민생경제과장은 "전북은 국내 중대형자동차 생산거점으로서 지난 3월 19일 '전북 자동차산업 노사정 상생선언'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 자동차산업의 재도약과 고용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완주군청 대회일 실시

전북자치도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핵심 역량 강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설명회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완주군청 대회일에서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완주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1월 전주·완주권역을 대상으로 중기청에서 개최된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 준비한 설명회로, 전주, 익산, 군산에 이어 전북 4순위로 많은 제조업체를 보유한 완주군에서 개최하여 보다 많은 전북 기업에 지원사업을 안내하고자 함이다.

설명회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완주군, 창업진흥원 등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기술개발(R&D), 창업, 보증(기술, 신용) 등 중소기업부의 분야별 지원사업과 전북자치도 및

도내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중소기업 지원 주요사업을 정리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시책안내서'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시책자'는 사업설명자료와 함께 설명회 참여기업에게 현장에서 배부됐다.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설명회에서 배부된 책자는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김희욱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완주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휴가철 대비 선제적 안전 관리 나선다

오늘부터 3일간 야영장, 관광숙박시설 등 14개소 표본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2일까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야영장, 관광숙박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야영장, 숙박시설 등 14개소를

선정해 표본 점검하고, 나머지는 시·군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반은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각 분야 안전관리지문단, 유관기관, 도·시군, 소방공무원 등으로 구

성됐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전기안전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상태 △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작동 여부 △소방시설 작성 여부 △비상구 등 피난 통로 관리 상태 등이다. 이번 안전점검 결과 지역별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시설주에게 보완하도록 통보하는 등 집중호우가 오기 전까지 위험요소 해소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운동목 도민안전실장은 "여름 성수기 전 사전 점검을 통해 전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